

-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리스테이지 서울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으로 공연에 필요한 의상과 소품 등을
대여·위탁할 수 있습니다.

무대 뒤의 기후행동

2025 서울문화재단 리스테이지 서울 친환경 리포트

보고서 소개

보고서 개요

본 보고서는 서울문화재단 리스테이지 서울이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 성과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보고 기간 및 범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리스트이지 서울>을 통해 운영된 공연물품 공유·재사용 사업 전반의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는 해당 기간 동안 대여·위탁·재사용된 공연 의상, 소품, 무대도구 등 공연물품과 관련된 운영 자료를 포함합니다.

보고 주기

본 보고서는 첫 발간된 친환경 리포트로, 향후 매년 1회 발간할 예정입니다.

산정 개요 및 한계

본 보고서의 탄소배출 절감량 산정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수행하였으나, 현 단계에서는 일부 방식에 있어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결과의 절대적 수치보다는 공연예술 분야에서의 자원순환 실천과 환경적 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에는 산정 기준과 자료 체계를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발행처 | 서울문화재단 리스테이지 서울

▪ 발행일 | 2026. 1. 22.

▪ 기획·제작 | 리스테이지 서울 임지은, 우민혁, 최승혁, 이신해, 이지안, 이다혜

▪ 자문·검수 | 녹색전환연구소

목차

I. 리스테이지 서울의 출발점과 과제

- 왜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가
- 리스테이지 서울과 '공유'의 필요성

II. 리스테이지 서울 개요

- 리스테이지 서울 사업 소개

III. 이용 현황으로 보는 공유의 확장

- 2025년 이용 현황 한눈에 보기
- 리스테이지 서울 이용 현황 추이 분석(2023-2025)

IV. 탄소배출 절감 산출과 성과

- 탄소배출 절감 산출 기준과 방법
- 2025년 탄소배출 절감 성과
- 일상적 지표로 환산한 탄소배출 절감 성과 비교

V. 공유가 만들어낸 변화

- 공유가 무대가 되다
- 친환경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

VI. 의미와 향후 방향

- 성과의 의미와 향후 방향



"공유와 재사용이 만든 친환경 전환 기록"

공연예술의 무대는 짧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의상과 소품은 오랫동안 현장의 고민으로 남아 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보관할 공간과 재사용 구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제작과 구매는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창작자의 선택을 넘어 **공연예술 환경 전반의 구조적 과제**입니다.

본 보고서는 공연물품 공유 사업 '리스테이지 서울'의 2025년 운영 성과를 정리하고, 공유를 통해 창작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절감이라는 환경적 효과를 도출한 사례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폐기에서 순환으로: 현장의 요구가 만든 공공 인프라"

리스테이지 서울은 공연예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물품 관리와 재사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공연물품 공유 사업입니다. 의상과 소품을 중심으로, 공연예술인이 필요할 때 빌려 쓰고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제작과 구매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서울시 정책에 반영**되어 추진되었으며, 공연예술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공유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유가 만든 변화 - 구매에서 재사용으로"

공연물품 공유는 단순한 대여를 넘어 **창작 방식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공연마다 새로 제작하거나 구매하던 물품을, 이제는 기존 자원을 재사용하는 선택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창작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제작·운송·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던 **환경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유는 공연예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지속가능성의 한 방식입니다.

“모든 재료의 50%가 재사용 또는 재활용된 출처인지 확인”

“그중 65%가 보관 또는 재사용을 통해 다음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 씨어터그린북-

사업
체계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순환 생태계"

온라인 플랫폼



www.restageaseoul.or.kr

오프라인 플랫폼



- 의상·소품창고
- 대도구창고

이용활성화 · 가치확산



- ESG파트너십



- 소품
- 팝업창구

서비스
체계

"빌리고 말기는 공연물품 공유 서비스"

공연에 필요한 의상과 소품을 빌려 사용하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작·구매 중심의 관행을 줄이고, 공연예술 현장의 지속가능한 이용 구조를 만듭니다.

- 대여하기
- 위탁하기

온라인
플랫폼

"검색부터 대여까지 한번에, 국내최초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다양한 공연물품을 온라인에서 검색하고
신청·대여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restageaseoul.or.kr

오프라인
플랫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도심형 창고"

공연예술인이 접근하기 쉬운 도심에 위치한 공연물품 공유 공간으로,
대여·반납·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 의상·소품창고: 서울 성북구 성북로8 서울연극창작센터 6층
- 대도구창고: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43

이용
활성화

"연결을 통해 확장되는 공유의 선택"

ESG 파트너십과 외부 협업을 통해 이용 접점을 넓히고, 공연
예술 현장에서 공유가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정착되도록 합니다.

수치로 보는 지속가능한 성과

2025년 한 해 동안 리스테이지 서울은 전년 대비 이용률이 약 3배 증가하며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대여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물품 확보 노력에 따라 보유 물품 수가 크게 확대되었고, 예술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인해 의상·소품의 대여 건수와 재사용 횟수 또한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폐관한 서울시 돈의문박물관의 유휴 물품을 이관받고, 현대리바트의 기업 후원을 통해 공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양질의 물품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 단체와 창작자들의 이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용 증가는 공연물품 공유가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공연예술 현장에서 실제로 선택되고 활용되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638점

연간 총 대여물품 수

1년간 리스테이지 서울 대여서비스를 통해 공연예술인들이 공유와 재사용한 물품 수

3억 7천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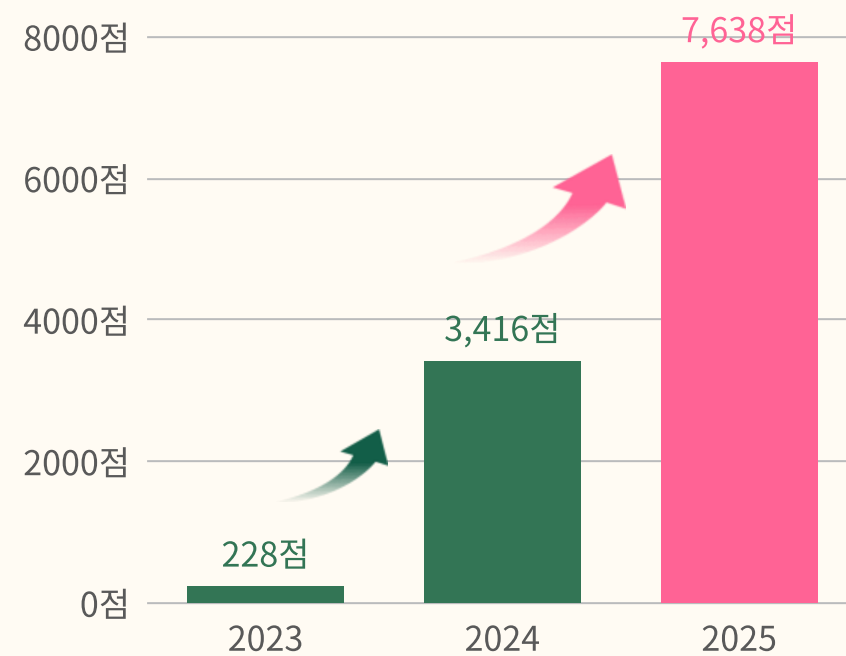
공연예술인의 제작비 절감액

1년간 공연에 사용되는 물품을 제작·구매하지 않고 공유·재사용함으로써 절약된 제작비 산출액

5,83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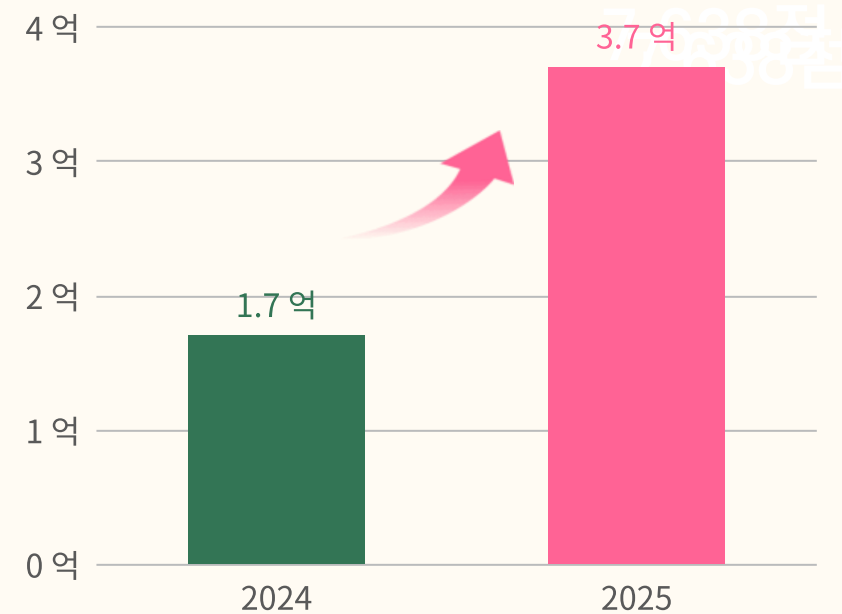
보유물품 수

서울시·기업·전문공연장 등과의 협력 및 공연예술인들의 물품 위탁을 통해 확보한 공유 가능한 물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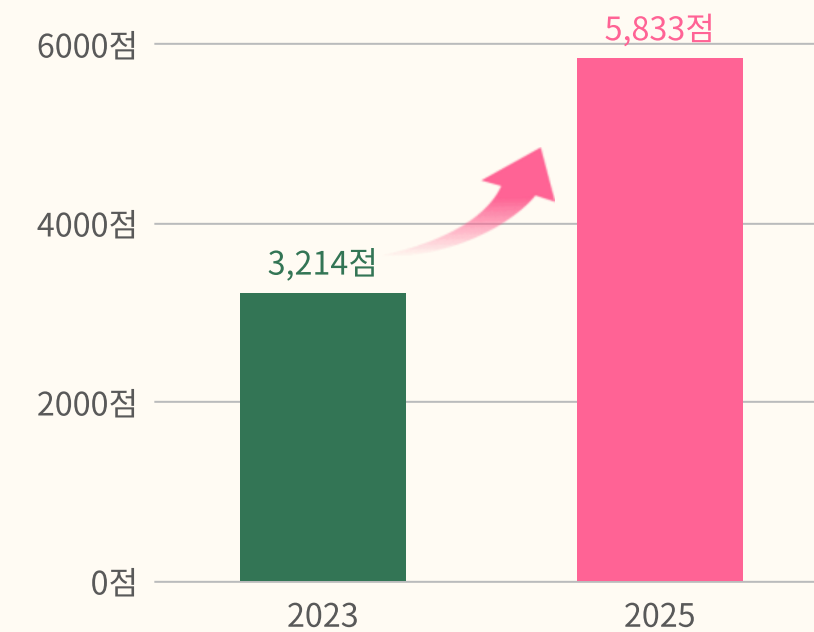
총 대여 물품 수 **11,282점**

시범운영 대비 본격 운영 2년차
대여 물품 수 약 33배 증가



공연예술인의 제작비 절감액 약 **5.4억**

공연물품의 대여·재사용으로
공연예술인의 제작비 부담이 완화된 효과



보유 물품 수 **5,833점**

서울시, 기업, 전문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재사용 가능한 공연물품 확보



본 보고서의 탄소배출 절감량은 리스테이지 서울이 보유한 약 5천여 점의 공연 의상과 소품을 대상으로, 무게·소재 등 세부 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산출 과정에는 문화·예술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단체 줄리스 바이시클(Julie's Bicycle)이 개발한 탄소 계산기이자 환경영향 측정 도구인 Creative Climate Tools(CC Tools)를 활용하였습니다. CC Tools는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 이동, 물류, 재료 소비 등의 데이터를 국제 표준 배출계수에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본 산출 과정에서는 단순 계산을 넘어 환경단체와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물품을 '사지 않고 재사용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은 제작·구매 단계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 성과로 환산하였으며, 공연물품 공유가 실질적인 환경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로 신규 제작을 피함으로써 줄어든 제작 단계 배출을 중심으로 산정하였고, 재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탁·운송·보관 등 부수적 배출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산출 기준과 과정은 보고서에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향후 데이터 축적과 분석 고도화를 통해 산출의 정확성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연물품 재사용으로 연간 탄소배출량 약 59톤 절감 (59,162kgCO₂e)

2025년 한 해 동안 리스테이지 서울을 통해 공유된 공연물품은 의미 있는 수준의 탄소배출 절감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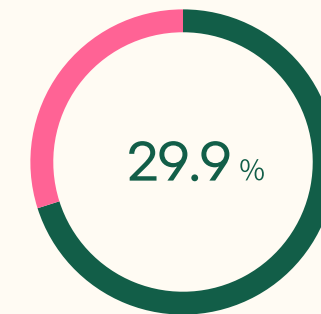
이는 특정 기술이나 규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공연예술인들이 '사지 않고 빌리는 선택'을 통해 축적한 성과입니다.

이 수치는 공연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창작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상

1,616점 재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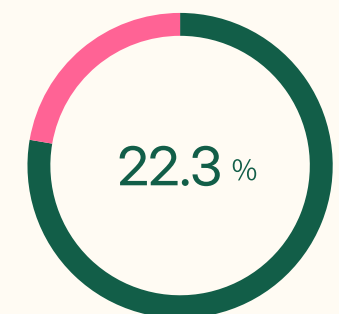
약 17,682kgCO₂e 탄소배출절감



소품

3,883점 재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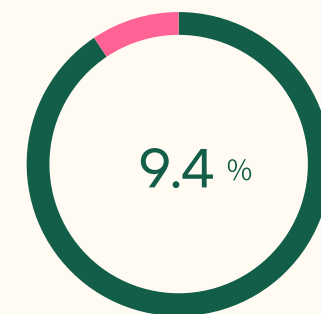
약 13,188kgCO₂e 탄소배출절감



잡화

1,275점 재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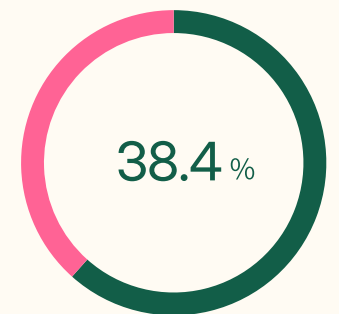
약 5,540kgCO₂e 탄소배출절감



대도구

864점 재사용

약 22,752kgCO₂e 탄소배출절감





서울 - 부산
승용차 왕복 기준
약 700회



연간 수목 2,7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



인천 - 뉴욕
항공기 왕복 기준
약 50회

- 출처: 환경부(2020)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보고서 '평균적 승용차 기준의 환산치'
- 출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2025) 탄소흡수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 공개 '물박달나무 기준의 환산치'
- 출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CAO 탄소 배출 계산기 '이코노미 기준의 환산치'



공유된 공연물품은 창고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무대 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리스테이지 서울을 통해 대여된 의상과 소품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에서 활용되며,
창작의 완성도를 유지한 채 **재사용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아래에 소개된 사례는 공연물품 공유가 **창작의 제약이 아닌, 지속가능한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제 무대 장면입니다.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 공연명 : 연극 <베를리너>
- 공연일자 : 2025.4.10. ~ 4.20.
- 주최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 장소 : 서울문화재단 대학로극장 퀴드

위탁



© fotoyangdongmin

- 공연명 : 연극 <명태 말고 영태>
- 공연일자 : 2025.12.11. ~ 12.14.
- 주최 : 서울연극협회, 김민주(스테이지홀스)
- 장소 : 서울연극창작센터 서울씨어터 제로

위탁
대여

© 성북문화재단

- 공연명 : 콘서트 <브랜치콘서트 [11시11분]>
- 공연일자 : 2025.9.19.
- 주최 : 성북문화재단
- 장소 : 꿈빛극장

대여

“ 플랫폼을 넘어 실천으로 확장된 활동들 ”

리스테이지 서울은 공연물품 공유 플랫폼 운영을 넘어, 공연예술계 전반에 지속가능한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ESG 관점의 다양한 가치확산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ESG 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목표로,
문화예술·교육·공공 영역을 아우르는 ESG 파트너십을 확대하였습니다.

- 누적 협약 현황: 113개 기관, 학교, 협·단체
- 2025년 신규 협약: 삼성문화재단, 우란문화재단, 엔씨문화재단, 성균관대, 중앙대, 서강대, 강동·성북·송파·중랑문화재단, 성북문화원, 우리옛돌문화재단, 극공작소 마방진

친환경 제작·운영 실천

운영 전반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실천을 병행하였습니다.

- 대여·반납 시 재사용 가능한 타포린 백 및 친환경 물품 우선 사용
- 재생지 및 콩기름 잉크를 활용한 친환경 홍보물 제작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순환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품 순환 모델을 실험·확장하였습니다.

- 서울시 돈의문박물관 폐관에 따라 발생한 유허 물품을 이관하여 공연물품으로 활용
- 현대리바트 기업 후원(약 2천만 원 규모)을 통한 공연물품 확보 및 재사용 기반 강화

시민 참여형 재사용 문화 확산

공연예술계 내부를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고자
다양한 참여형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 플리마켓 참여를 통한 공연물품 재사용 인식 제고 및 가치 공유
- 공연물품 순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쇼룸 기획·운영

리스테이지 서울 **의상·소품** 창고리스테이지 서울 **대도구** 창고리스테이지 서울 **쇼룸**

2025년, 리스테이지 서울은 공연물품 공유를 통해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창작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감 성과를 넘어, **공연예술이 자원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리스테이지 서울은 앞으로도 공유와 재사용이 공연예술 현장의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무대 뒤의 선택이, 공연의 내일을 만듭니다"